

지역 매아리

부안군, 체납세 정리기간 운영

부안군은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11월 30일까지 2019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 일제 정리를 운영하여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펼친다고 말했다.

군은 체납자 전체에 대해 독촉장 및 체납 고지서를 발송하고 압류 및 공매 처분 예고를 통해 지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출국금지,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등록, 직장 급여 및 금융재산 압류·추심 등 행정제재 조치를 병행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징수유예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고의·상습적인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체납세를 징수한다"는 강력한 의지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쳐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세 없는 부안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스카우트 지도자 훈련 초·중급 과정 운영

부안군은 2023년 부안에서 개최되는 제25회 부안 세계스카우트잰버리 성공적 개최 준비를 위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2박3일간 조포만갯벌생태공원에서 '제326기 스카우트 지도자 훈련 초·중급과정'을 열었다.

이번 지도자 훈련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일반인 48명과 공무원 13명이 수료하였으며, 2박3일 동안 텐트숙박, 반별 자체취사, 하이킹 등 세계스카우트연맹 지도자교육 지침에 따라 이루어졌다.

참여한 일반인들은 부안에 위치한 2023년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잰버리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학부모·농민·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업군이 참여했다.

또한 이번 훈련을 수료한 지도자들은 학교대 및 지역대를 만들어 대장으로 활동할 수 있어 부안 세계스카우트잰버리의 불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도자 훈련에 참여한 군민은 "스카우트 지도자 훈련을 통해 스카우트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더불어 부안 세계스카우트잰버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홍보하고, 많은 부안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장으로서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역 관광 홍보판 '새 단장'

기동 녹 제거·벽면 도색 이미지 교체 작업 등 정비

정읍시가 역 광장에 설치된 관광 홍보판을 새롭게 정비했다.

시는 정읍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한 눈에 정읍의 대표 관광지를 소개하고 보여줄 수 있도록 역 광장에 관광 홍보판을 설치한 바 있다.

광장의 홍보판은 정읍 대표 관광지 홍보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설치 후 시간이 지나며 변색되어 사진과 글씨가 흐려졌다.

이에 시는 정읍 방문의 해를 운영하는 만큼 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쾌적한 경관을 선사하기 위해 홍보판을 새롭게 단장했다.

기동 녹 제거, 벽면 도색, 이미지 교체 작업 등을 통해 관광 홍보판을 정비했다.

새롭게 단장한 관광 홍보판은 가로 12.6m 높이 1.5m로 △유네스코 세계



정읍시가 역 광장에 설치된 관광 홍보판을 새롭게 정비했다.

유산 무형유산 △중학농민혁명 국가 기념공원 △내장산 단풍터널 △옥정호 구절초 테마파크 △김병관 고택 △피향정 연꽃 △정읍천 벚꽃길로 주요 관광지를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읍에 온 관광객이

처음 마주하는 정읍역 광장의 홍보판 만큼 깔끔한 인상을 주기 위해 홍보 판을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역광장 홍보 판 외의 관광 홍보 판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보건소, 가을철 진드기 결핵 등 감염병 주의 당부

정읍시 보건소는 지난 10월 정읍야산병원과 연계해 손 씻기 체험과 진드기 매개 감염병, 결핵 검진, 성매개 감염병 등 감염병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병원 내외곽과 환자, 직원을 대상으로 손 씻기 상태 점검과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교육했다.

올바른 손 씻기는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감염 예방법'으로 대부분 감염병은 올바른 방법으로 손 씻기만 실시해도 예방할 수 있다. 또 가을철 유행하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과 관리, 2주 이상 기침 지속 시 결핵 검진 등 각종 감염병 예방 관리법에 대한 홍보도 진행했다.

결핵은 전염성 결핵 환자의 기침과 재채기 또는 대화 등을 통해 배출된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다른 사람의 폐로 들어가게 되면 감염이 되는 질병이다. 2주 이상 기침과 발열, 식은땀, 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지속되면 반드시 보건소를 방문해 무료 결핵 검진(흉부엑스선검사, 객담검사)을 받아야 한다.

또, 농작업과 벌초 등 야외 작업 후에는 입었던 옷은 집 밖에서 털고 세탁해야 하며 즉시 목욕을 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결핵은 전염성 결핵 환자의 기침과 재채기 또는 대화 등을 통해 배출된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다른 사람의 폐로 들어가게 되면 감염이 되는 질병이다. 2주 이상 기침과 발열, 식은땀, 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지속되면 반드시 보건소를 방문해 무료 결핵 검진(흉부엑스선검사, 객담검사)을 받아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일상에서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 세균이 전파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바란다"며 "감염병 예방 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각종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노인의 날 기념식' 성황리 마쳐

정읍시가 지난 11월 정읍시예술회관에서 '제23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지회장 이호춘)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노인의 날(10월 2일)을 기념하고 노인복지 증진 유공자를 발굴·표창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유진섭 시장과 기관단체장을 비롯해 지역 어르신 8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웃찾사 공연단의 유쾌한 식전공연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 기념식에서 노인복지기여자와 유공 공무원 등 11명에게 시장 표창, 정읍시의회 의장상 5명과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지회장상 10명에게 각각 수여식이 진행됐다.

유진섭 시장은 "오래된 현악기에서 깊고 고운 선율이 나오듯 어르신들

이 지혜와 경륜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큰 역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지역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 지혜와 경륜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큰 역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지역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 지혜와 경륜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큰 역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지역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 지혜와 경륜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큰 역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지역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 지혜와 경륜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큰 역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지역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 지혜와 경륜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큰 역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지역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 지혜와 경륜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큰 역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지역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 지혜와 경륜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큰 역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지역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 지혜와 경륜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큰 역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지역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 지혜와 경륜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큰 역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지역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 지혜와 경륜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큰 역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지역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 지혜와 경륜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큰 역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지역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 지혜와 경륜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큰 역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지역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 지혜와 경륜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큰 역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지역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 지혜와 경륜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큰 역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지역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 지혜와 경륜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큰 역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지역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 지혜와 경륜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큰 역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지역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독서 통해 인문학도시로 거듭

고창군, '대한민국 책 읽는 지자체 대상' 수상 쾌거

고창군이 '책 읽는 지자체 대상'에 선정되며 '인문학 도시' 기반을 공고히 했다.

지난 11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서울 KR컨벤션웨딩에서 열린 '2019년 책 읽는 대한민국 대상'에서 제4회 책 읽는 대한민국 대상에 선정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책 읽는 지자체 대상'은 독서·출판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뛰어난 기획력을 통해 책 읽는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된 지자체에게 주는 상이다.

국민독서문화진흥회, 책읽는사회 운동본부에서 주관하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후원한다.

민선 7기 고창군은 지난해 11월 전국에서 독서율이 가장 높은 인문학 도시 조성을 위해 전국 책 읽는 도시 협의회 가입해 왕성한 활동을 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군 단위 최초로 제3회 고창한글지역도서전을 성공적으로 열었고, 상설 인문학 강좌매주

월, 화) 운영, 독서동아리 활성화 등 책과 문화를 즐기는 생활문화 조성으로 '책 읽는 대한민국'에 기여한 점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앞으로도 전국에서 독서율이 가장 높은 도시를 목표로, 도서관과 생활공간 곳곳에 책과 독서를 통한 지역사회의 화합과 소통의 공간이 되도록 전문적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0월11일은 대한출판문화 협회가 정한 '우리나라 책의 날'로 유네스코 '책의 날'보다 8년이나 앞선 1987년 처음 제정됐다.

고려팔만대장경을 완성한 1251년 음력 9월 25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10월 11일이다.

팔만대장경의 완성을 기념하고 책의 소중함과 즐거움을 널리 알리기 위해 팔만대장경이 완성된 10월 11일이 대한민국 '책의 날'로 제정된 의미 있는 날이다. /고창=김영식기자

열악한 재정여건에 효자 역할 '특목'

고창군, 지역밀착형 생활SOC 등 잇따른 공모사업 선정에 국비확보 탄력

고창군이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내년도 국비확보에 탄력이 기대되고 있다.

지난 11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지역밀착형 생활SOC' 등 통합복지, 재난안전, 농생명 분야의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됐다. 공모사업은 열악한 지역 재정여건을 극복할 국비 확보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먼저 문재인 정부 역점사업인 '지역밀착형 생활SOC'로 2건이 선정됐다.

'고창읍 가족행복지원센터(총사업비 142억원)'는 고창읍사무소와 가족센터 기능을 결합했다. '세대공감 클방 문화공간(총사업비 128억원)'은 군의 문화적 중심지가 되어줄 군립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가 연계됐다.

재난 예방을 위한 사업비도 확보해 '안전고창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 '고창지구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총사업비 236억원)'과 '평지지구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총사업비 225억원)'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했다.

특히 '상하 용정 상습가뭄해지구 정비사업(총사업비 70억원)'은 가뭄피해예방은 물론, 산불 소화용수로도 활용이 가능함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행정안전부에서도 처음으로 가뭄을 재해예방사업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올렸다.

고창의 미래 주력산업으로 추진 중인 농생명 분야에서도 공모 선정이 잇따랐다.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사업(총사업비 80억원)'과 '고구마 가공 시설 지원사업(총사업비 67억원)'이 공모에 선정돼 농산물 가공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앞서 고창군은 내년 국가예산 확보 사업으로 신규사업 73건과 계속사업 41건, 국책사업 12건 등 총 126건(국비 1470억원)의 사업을 발굴해 8월 말 정부예산안에 720억원이 반영됐다.

이달 중순부터 본격화 될 국회 예산 심의단계에선 고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20억원), 강남지구 배수 개선사업(2억원 추가반영) 등 아직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이밖에 지방이양사업(48건/요구액 329억원)과 부처풀예산 사업(6건/요구액 31억원), 국책사업(12건/요구액 403억원)을 비롯해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계속사업의 국비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a bottle of wine and a smaller image of a gift set.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There are also several smaller images of different wine bottles and gift sets with their respective prices and descriptions.